

셋째 아들부터 兵役면제 입법추진

고조흥, 병역잉여 해소 출산장려 정책 간접 효과 올 상반기 대전TP 軍동의 문제 해결 가능성 높아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국방위, 포천·연천)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독일(9개월)이나 대만(16개월)을 예로 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연후에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군 복무 단축보다는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라며 "그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은 산업체나 공익근무 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다. 이같은 유휴병역을 정부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복무기간 단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

한가정에서 두명이 군복무를 한다면 셋째아들까지 군복무를 한다면 이치적으로 맞는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 가정에서 2명이 군복무를 했다면 한명 정도는 면제시켜야 평등원리에 맞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세계올림픽이나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이나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때 국위를 선양했다는 차원에서 병역을 면제시켜 준다. 한가정에서 2명이 군복무를 했다면 국위를 선양한 선수 못지 않게 국가에 봉사했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제도의 하나로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일의 경우 이같은 맥락에서 셋째아들부터 병역을 면제시켜 주려고 한다. 셋째아들에 대해 병역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형평성, 충성도 등을 감안하면 병역기간 단축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고 의원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해 줄 경우 병역 잉여자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병역기회를 목적으로 하는 병역비리 차단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출산이 낮아지면 국가경제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고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복무기간이 9개월인 독일의 경우 셋째와 둘째 아들이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셋째아들이 하부터 병역을 면제해 주는 세계 유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출산율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리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 심리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한편, 고 의원은 군 복무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과 부사관 중 하사, 중사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승진시키는 군속승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다음은 고조흥 국회의원과 그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셋째 아들부터 병역면제 입법을 추진하는 취지는
정부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국방계획에 따르면 현재 69만명의 군병력을 오는 2020년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매년 군인대 하는 병력자원은 28만명인데 반해 필요인력은 20만명 정도다. 8만명의

▶셋째 아들 병역면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출산이 낮아지면 국가경제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군복무기간 가산제도 입법추진 취지는
과거에 군복무 기간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취직시험에서 3%에서 5%까지 가산점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요소가 있다고 하여 없어졌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것은 3-5%의 가산점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새롭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군복무자에게 2-3%의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다.

▶대전테크노파크 군동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군부대와 국방부, 합참 등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를 변경해 군작전상의 문제 등이 없도록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 외에도 포천지역은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군관련 사업은 포천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국방부의 협조가 없으면 더욱더 힘들다.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그런 메카니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법안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국방부, 합참 등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를 변경해 군작전상의 문제 등이 없도록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 외에도 포천지역은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군관련 사업은 포천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국방부의 협조가 없으면 더욱더 힘들다.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그런 메카니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대전테크노파크 사업 외에도 포천지역은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군관련 사업은 포천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국방부의 협조가 없으면 더욱더 힘들다.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그런 메카니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㉑ 포천시 전체 업무추진비 10억여원

포천시 市長 업무추진비 年 2억450만원 대부분 경비로 사용

2007년도 포천시 예산 3천222억7천660만원,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지출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포천시가 시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2007년 세출예산 가운데 경상적 경비는 전체 예산의 11.2%로 지난해 대비 13.7%가 증가한 43억3천826만3천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흔히 관공비(辦公費)라고 표현되는 업무추진비는 원래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올 1년 포천시 업무추진비는 10억여원에 달한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집행된다. 업무추진비는 다음의 6가지로 분류된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소액경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포천시 市長 업무추진비 2억450만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천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3천250만원) ▶부시장 9천100만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천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천만원) ▶자치행정국장 2천100만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경제농정국장 2천100만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건설도시국장 2천100만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등이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등 1천120만원이고 이밖에 문화공보담당관실 1천420만원 등 각 부서별로 작게는 900만원에서 1천220만원까지이다.

또 소출을 1천340만원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1억7천만원이 배정됐다. 여기에 비해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의회운영 1천100만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장 300만원, 행정자치업무 시책추진비 200만원, 산업건설업무 시책추진비 200만원, 의회사무국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420만원이다.

▶포천시 전체 공무원 인건비는 연간 320억8천833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5억6천48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중 본봉은 177억9천576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5천828만원이 증가했다. 3급에 해당하는 포천시장과 부시장 연봉은 7천900만원, 4급 서기관 5천84만원, 9급은 1천129만9천200원 등이다. 이밖에 각종 수당을 합한 포천시 전체 인건비는 342억1천572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장 업무추진비 주요 시책사업과 주요 행사 업무 추진에 많은 금액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2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대부분 카드결제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내역상에 산정된 포천시장을 비롯한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는 땀과 눈물을 바칩니다

먹고 사는 걱정 덜 하고, 교육비·병원비 걱정 덜 하고,
아주 가끔 놀이동산에 놀러 갈 만큼의 여유...
우리의 꿈과 소망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 소박한 꿈들을 위해, 우리 기업은 신명나게 일거리를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하이닉스 투자!
6,600개 일자리가 이 땅을 떠나 해외로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일입니다.

